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㉓ 성철의 지눌 비판과 돈점 논쟁



▶한줄요약

우리나라 선종 간화선은 보조 지눌(知訥, 1158~1210)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눌은 선종과 교종이 심각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둘을 회통시키고 독창적 간화선 수행법을 마련했다.

"불교 수행, 절대적 깨달음 가능성 보여줘야"



지눌 스님 진영.

1. 논쟁의 시작

돈점(頓漸) 논쟁은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열한 논쟁 중의 하나였다. 돈오점수(頓悟漸修, 문득 깨달은 뒤 점진적 수행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와 돈오돈수(頓悟頓修, 문득 깨달아 부처가 되니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를 두고서 그 효용성과 정당성을 따지는 논쟁이다.

돈점 논쟁은 성철(性徹, 1912~1993)이 보조 지눌(知訥, 1158~1210)을 비판하면서 시작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750여 년 뒤인 오늘날 지눌의 가르침이 더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였다. 필자는 수행자로서 다양한 매체와 선지식들의 담화를 통해서 이를 접해왔다. 이 글은 그 비판과 논쟁이 수행의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한 것이다.

2. 지눌 수행법

지눌은 성적등지문, 원돈신해문, 간화경절문(看話徑截門) 등 삼문(三門)을 만들었다. 그 중 간화경절문은 곧바로 본래면목을 터득하여 부처가 되는 간화선 수행법이다. 지눌은 상근기를 위해 간화경절문을 제시하면서, 돈오점수적 수행론을 배제하지 않았다. 돈오점수를 지향하는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을 만들고 그 한계도 지적했다. 원돈신해문의 사구(死句, 상투적 구절)는 분별 알음알이를 생성하기에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알맞은 수행법이 될 수도 있다도 생각했다. 상근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은 것이다.

지눌은 자기 시대 중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지눌의 '보조선(普照禪)'은 고려 중후기 고통스런 현실에서 헤매던 동시대인을 위한 것이었고, 그런 정신이 깃들었기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수행법이 되고 있다.

3. 성철의 지눌 비판

성철은 "먼저 깨달은 뒤에 닦는다."라고 하는 지눌의 돈오점수적 생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지눌 이후 경허에 이르기까지, 경허 이후 더 또렷하게 돈오점수만이 추구되면서 한국불교가 심각한 문제적 상황에 봉착했다고 성철은 진단했다. 구경각(究竟覺)이 아닌 해오(解悟. 생각으로 깨달음)를 견성으로 착각하고 점차로 닦아서 부처의 경지로 갈수 있다고 여기는 돈오점수 수행자가 대부분이라 개탄했다.

성철은 〈육조단경〉에 의거하여, '무심' 혹은 '무념'이 견성임을 강조했다. 이 경지는 미세한 망념까지 영원히 없어진 것이기에 자기 본성을 분명히 보고 구경각을 이루니 그대로 부처라고 했다. 그런데 '자기 본성을 보는 것'과 '미세망념이 없어지는 것'은 찰나 동시적 현상이다. 그래서 단박에 깨치는 '돈오'이지 점차로 수행해서[漸修] 깨닫는 것[漸悟]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눌과 돈오점수를 비판한 성철은 돈오돈수만이 옳은 수행법이라 결론지었다. 성철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돈점 논쟁이 불붙었다. 이 논쟁은 돈오점수의 필요성을 변호하는 쪽과 돈오돈수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둘이 공존할 수 있거나 하나가 다른 것을 포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런데 논쟁의 출발점인 성철이 지눌의 문구를 부정확하게 인용하고 논리의 비약을 보이기도 한다. 가령 지눌의 〈간화결의론〉은 돈오점수가 아니라 돈오돈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성철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눌을 돈오점수자로만 보았다. 또 성철은 지눌의 돈오가 알음알이 수준에 머문 것이어 지눌을 지해종사(知解宗師)로 규정하고 '마음에 체험이 되지 못'했다고 지눌을 폄하했다. 그러나 지눌은 〈수심결〉 등에서 돈오를 통한 무수이수(無修而修)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성철의 비판은 설득적이지 않다.

그 뒤 논쟁에서는 사용되는 개념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거나 호도되기도 했는바, 이 점은 논쟁의 가치와 의의를 축소시키는 이유가 될 것이다.

4. 선승들의 견해와 실천

성철의 지눌과 돈오점수에 대한 비판은 한국선불교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다. 선승들의 입장도 더 분명해지게 되었다. 일찍이 한암(漢巖, 1876~1951)은 지눌의 〈수심결〉을 읽다가 '깨닫고'는 경전 공부를 그치고 참선을 통한 구도의 길로 들어섰다. 한암은 몇 차례의 깨달음을 계속해가고, 깨달음 이후에도 닦음을 멈추지 않았다. 깨달음은 계속되는 수행을 요구한다고 가르쳤고, 깨달음 이전의 닦음은 참된 닦음이 아니라고 보았다. 깨달음[돈오] 이후의 닦음[점수]을 '깨달은 뒤의 소치는 일[悟後牧牛行]'이라고 했다. 한암은 돈오점수적 소신을 피력했고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이끌었다.

성철의 지눌 비판으로 '돈점' 논쟁 점화
지눌 · 돈오점수 비판, 한국 선에 충격
부정확한 인용, 논리의 비약 보이기도

반면 수산(壽山, 1922~2012)은 지극한 수행 끝에 문득 깨닫는 것이 돈오이고 더 닦을 것이 없다고 하여 돈오돈수를 지지했다. 진제(眞際, 1931~)는 돈오돈수가 화두 일념삼매에 푹 빠져 죽었다 살아남으로 인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수행법이라 보고, 부처님의 법맥은 돈오돈수법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했다.

한편 고우(古愚, 1937~2021)는 '위빠사나'가 '미혹'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닦는 것이라는 점에서 돈오점수 수행인 반면, 간화선은 착각을 단박에 깨는 것이기 때문에 돈오돈수라 했다.

고우는 집중 삼매가 8식 수준에까지 이루어진 것이 '오매일여(寤寐一如)'인데, 마치 은산철벽에 들어간 상태와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지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은산철벽을 뚫고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확철대오'이다. 이 경지는 생각의 길이 완전히 끊기고, 주관과 객관도 사라져, 모든 분별이 다 사라진 경지이다.

그런데 오매일여는 8지보살의 경지인데, 이때 사람의 근원적 욕망인 색욕까지 사라진다. 이 근원적 욕망을 뿌리 뽑지 못하면 언행일치가 안 된다고 하여,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표징을 '언행일치'에서 찾았다. 스스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 자각되면 '깨달았다' 말하지 말고 그냥 '지견(知見)이 났다'고 겸손하게 고백한 뒤 돈오돈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양심적인 수행자의 태도라고 가르쳤다.

5. 계속되어야 할 질문과 성찰

돈오, 돈수, 점수의 주체는 한창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인가, 아니면 이미 '깨달은 수행자'인가? 수행은 돈오 전의 수행인가, 돈오 이후의 수행인가?

'깨달음'이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깨달음 없는 깨달음'이기에 원칙적으로 돈오돈수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행의 단계와, 수행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절차, 깨달음 뒤의 남은 과제 등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 소위 사문사과(沙門四果)가 수행자들의 지위는 아니지만, 수행 경지의 단계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수행의 절차와 과정, 깨달음의 단계에 대하여 반복하여 계시한다. 이른바 '9차제정'이다. 부처님은 무색계 사선정 중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천정' 수행 단계조차 단계적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상수멸정(想受滅定)으로 들어갔다가 그 과정을 되풀이 하였다. 수행 중생을 위해 부처님이 보여준 '수행 단계'요 '수행 절차'인 바, 이것도 돈오점수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원각경〉의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가르침도 너무나 소중한 수행 지침이 되어왔다. 이들은 동시적이면서도 계기적이고 계기적이면서도 동시적이다. '해-행-증'이라는 〈원각경〉의 차제는 '정견-점수-돈오'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해오(解悟)-점수-돈오'라고 확장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해오(解悟)를 '깨달음'으로, 증오(證悟)를 '깨침'으로 구별하자고 한 박성배(朴性焙, 1933~)의 견해가 관심을 끈다. 증오를 명백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해오의 개념이 필요하다. 또 수행의 과정에서 해오(解悟)의 단계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오(解悟)는 분별적 알음알이와는 다른 것이다. 해오는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혹은 '우리의 분별로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행 과정에서 완전한 깨침인 '돈오' 못지않게 소중한 단계가 된다. 해오를 중요한 수행 단계로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점수(漸修)가 뒤따라야 한다. '점수(漸修)'는 '닦지 않는 것이면서 닦는 것' 즉 '무수이수(無修而修)'이다. 여기서 '무수(無修)'만 강조하면 돈수(頓修)가 되지만 '수(修)'까지도 고려하면 점수(漸修)가 된다.

닦으려면 시간의 존재를 전제해야 한다. 또 닦을 게 없지만 닦기도 해야 한다. 수행 영역에서 하근기 중생들의 상식적 형편을 고려한다면 '점수'를 우선 떠올려 인정하게 되고 '돈수'는 너무나 막연한 경지로 느껴지기도 한다.

다른 한편, 시간은 공한 것이고 환(幻)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생각이 무량겁의 생각이 된다.[一念卽是無量劫] 이 수준에서 보면, 돈수와 점수는 같은 것이 된다. 그러면 돈오돈수가 옳으니 돈오점수가 옳으니 하는 논쟁은 '일념즉시무량겁'을 모르거나 고려치 않은 부질없는 말장난이 된다. 일념 한 순간에 깨닫는 것과 무량겁에 깨닫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 〈화엄경〉의 "초발심이 곧 정각이다[初發心時便正覺]"라는 가르침을 떠올리면 돈오돈수가 맞다. 즉 돈오돈수는 "초발심이 곧 정각이다."라는 〈화엄경〉 가르침의 선적 표현이 되는 것이다.

불교 수행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돈오돈수는 모든 중생이 즉시 문득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중생 해방의 수행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세대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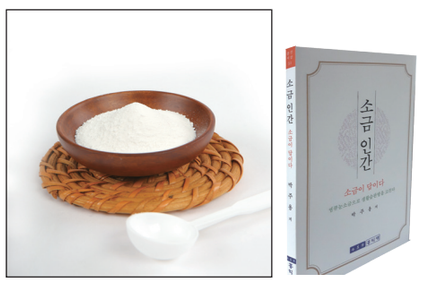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